

홍삼, AIDS에 치료효과 '탁월'

울산대 조영걸 교수팀 연구결과 국제학술지에 실려

고려홍삼이 에이즈(AIDS)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17일 국제면역약리학회지(International Immunopharmacology) 7월호에 따르면 울산대 의대 조영걸 교수팀은 지난 91년부터 국내 에이즈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AIDS치료제(지도부딘.ZDV)와 홍삼을 함께 복용시킨 뒤 10년동안 면역세포(CD4+Tcell)의 증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내성이 억제되고 면역세포수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에이즈 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ZDV는 환자들이 2년 이상 복용할 경우 내성 때문에 면역세포 수가 1년에 60/ul가량씩 급격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교수의 연구결과 전체 11명의 에이즈 환자에게 10년 여 동안 ZDV와 함께 홍삼을 복용시킨 결과 모든 환자의 면역세포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으며 바이러스 농도(RNA copy수)도 치료 당시의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들 대부분이 아주 낮은 빈도의 내성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홍삼이 내성의 발현을 억제, 면역세포 수의 감소를 현저히 늦춘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했다.

특히 조 교수는 말초혈액단

핵구세포(PBMC) 내 에이즈 바이러스(HIV-1) 가운데 내성을 초래해 세포수의 감소를 일으키는 '점 돌연변이'가 홍삼을 복용한 환자들 가운데서는 단 1명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현재 모든 AIDS 치료제는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에도 4-5년 복용하면 내성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3-4가지 약을 각테일해 사용해도 궁극적으로 치료실패를 가져온다'며 '홍삼은 장

기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없고 다른 치료제에 비해 값이 1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AIDS 치료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조 교수와 함께 AIDS 환자의 유전자와 관련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AIDS 환자가 많은 태국에서는 고려홍삼을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자양강장에 좋은 양갱형 경옥고 개발

옛부터 황실이나 귀족사회에서 애용하던 건강보양식 경옥고가 이제 일반인들도 간편하게 즐길수 있는 양갱형 건강식품으로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반고형 죽(gel)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경옥고를 누구나 간편하게 먹기 쉽고 또한 기호성도 높은 양갱형태의 즉석편이식 건강식품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된 양갱형 경옥고는 6개월 이상의 저장성을 가지며 탄력성, 응집성, 경도 및 씹힘성도 크게 개선되어 관능시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의보감 처방에 따른 경옥고는 순수한 국산 생약재인 생지황 즙액에 인삼가루, 백복령가루 및 꿀을 배합하여 용

기에 넣고 5일간 중탕시킨 것으로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후쇄약, 갱년기장애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보혈강장제이다. 그러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경옥고는 반고형의 죽(gel)상태로서 숟가락으로 떠서 복용하기 때문에 먹기 불편하고 취급상의 어려움은 물론 기호성도 좋지않아 복용하는데 문제점이 많았다.

본 발명은 특허등록과 함께 산업체에 기술이전 되어 조만간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작물시험장 송정춘 박사는 "양갱형 경옥고 개발로 원료 생약재 생산기반 유지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 과학기술 접목에 의한 전통 한약제품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여름에 좋은 '한방차'



습기와 무더위로 짜증을 더하는 여름. 이유없이 몸이 나른하고 쉽게 지치기 쉬운 계절이다. 입맛 없고 기력이 떨어질 때 시원한 차 한잔으로 기분전환을 해보자.

◆오미자차: 달고 쓰고 시고 맵고 짠 5가지 맛의 한약재. 수분손실을 막아주고 냉방병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미자는 자양, 강장, 신장기능에 좋은 사과산이 많아서 피로회복에 좋고, 기침과 갈증해소에 쓰이며 또한 기침과 설사를 멎게 하는데도 효과적이다.

또한 과로로 인한 기억력 감퇴, 시력감퇴에도 효과적이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권할 만하다. 찬물에 오미자를 5~6시간 담가 빨갛게 우려낸 물을 약

간 끓여 꿀이나 설탕을 넣으면 된다. 오미자를 바로 끓이면 비타민이 파괴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기자차: 피로회복에 좋으며 꾸준히 마시면 잔병치레와 고혈압을 막아 준다. 여름철 원기가 떨어져 소화기 안되고 설사증세에도 효과적이다. 볶은 구기자 약60

g을 3l의 물에 넣고 약1시간 끓인후 설탕이나 꿀을 넣으면 된다. 냉장고에 보관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

구기자는 오미자와 함께 달여 마셔도 궁합이 잘 맞는다. 특히 구기자, 맥문동, 둥굴레는 궁합이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맥산차: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맥문동(40g)에 오미자(10g), 인삼(40g)을 혼합한 여름 한방차. 무더위에 열이 나고 입을 마를 때 효과적이며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좋다.

물 2l를 끓인후 오미자를 건져내고 그 물에 인삼과 맥문동을 넣고서 15분정도 끓이게 되면 좋은 약차가 된다. 여기에 구기자, 감초를 함께 넣어 끓여도 좋다.

북한 잡지가 소개한 땀띠 치료방법

땀띠는 땀때문에 땀구멍이 막혀서 발진이 생기며 몹시 가려운 피부질환이다.

여름철에 땀띠는 어른이나 아이들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특히 아이들은 열이 많고 피부의 조절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땀띠가 잘 생긴다.

북한 대중잡지 천리마 최근호(2001년 6월호)는 땀띠를 치료할 수 있는 민간요법 몇 가지를 소개했다. 이 잡지는 우선 오이와 앵두, 우엉잎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신선한 오이를 길게 반으로 자른 다음 절단된 면을 땀띠가 난 자리에 대고 문지른다. 이렇게 하면 심한 땀띠도 잘 낫는다고 잡지는 전했다. 또 신선한 앵두를 찧어 즙을 낸 다음 이를 하루 2~3회 땀띠가 난 곳에 바르는 것도 좋은 치료법이라고 밝혔다.

우엉잎을 끓인 물도 땀띠

에 좋다. 이 잡지는 신선한 잎은 20g, 말린 잎은 5~7g을 물 150ml에 10~15분 동안 끓여 가제 등에 적셔 문지르고 '땀띠분'을 뿌려주면 더욱 좋다고 밝혔다.

잡지는 이와 함께 알로에 쥬스나 소금물 쥬스도 땀띠 치료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알로에 쥬스는 알로에의 신선한 잎을 따서 자른 뒤 즙이 나오는 쪽을 땀띠가 난 부위에 대고 한 번에 1~2분 정도 세계 문지른 후 쥬스해 주는 것으로 알로에는 진통작용과 항염증작용이 있으므로 가려움을 멈추게 하고 땀띠가 사그라지게 한다고 잡지는 전했다.

소금물 쥬스는 간단하다. 물 3~4l에 소금 세 숟가락 정도 넣고 100℃도 정도에서 10~15분 끓인 다음 미지근하게 식혀 땀띠가 난 부위에 하루에 2~3번 씻으면 땀띠가 사라진다고 잡지는 말했다.

<연합뉴스>

산대추씨 발육 늦은 어린이에 효과

경희대 이진용교수팀

한방약재인 산조인(산대추씨)이 키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희대 한방병원 이진용, 김덕곤(소아과) 교수와 농협 축산연구소 한영근 박사는 평균체중 7.5kg의 어린돼지 90마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산조인을 투여한 돼지에서 키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엔도르핀 분비량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흔히 키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유전에 의한 영향은 23%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영양상태, 운동 등 외부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의학자들의 주장. 성장을 방해하는 외부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꼽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 분비량이 증가하고 베타-엔도르핀 분비량은 감소한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산조인은 심장과 간, 쓸개를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비장의 기능을 돕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잘 놀라는 등 신경이 예민하거나 쇠약할 때 사용한다.

이 교수는 "산조인이 불면증 치료제로 자주 사용되는 생약이라는 점과 이번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볼 때 성장발달이 늦은 어린이에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속옷 개발'

생리통·냉대하에 효과

생리통, 냉대하, 소양증을 개선해주는 효과를 갖는 한약 캡슐 속옷이 개발됐다.

삼정한의원(원장 이승교)은 생리통, 냉대하, 소양증 등 여성질환을 가진 여성들에게 애엽, 정향, 목단피, 천초, 도과 등 한약재를 캡슐로 넣은 속옷을 2주~2개월 동안 입혀 조사한 결과 생리통은 50%, 냉대하·소양증은 70%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한약재는 핵산추출법을 이용해 1000분의 1mm 이하로 마이크로캡슐화한 뒤 속옷 섬유에 정착된다.

이 원장은 "이 속옷을 착용하고 생활하면 피부와 접촉할 때 터져 한약 성분이 피부를 통해 몸에 흡수된다"고 말했다.

한약캡슐 속옷은 5~10회 가량 세탁을 해도 향이 남아 있으며, 30~40회 가량 세탁해도 성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원장은 말했다.